



수산물 포장상자 규격화 재정비 추진

김천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기공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2002년부터 수산물 불류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3대 도매시장(가락·노량진·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어상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10kg 미만 : 140원/box, 10kg 이상 : 320원/box)해 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게 출하자가 직접 수탁하는 대중 선어류 어상자에 대하여도 지원하는 등 실질경매제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수산물 규격 출하자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수산물의 규격화 및 출하자의 직수탁을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 조기 정착 및 선진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의 규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수산물의 크기나 중량에 의한 규격을 목재, 종이, 스티로폼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규격화를 통해 생산단가 및 출하비용을 줄이고 수도권 도매시장이나 생산지 위판장 등에서 기존 인력에 의존하는 하역체계를 기계화로 전환하여 하역작업의 인력 의존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인데도 여전히 하역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의 규격화가 수산물 포장상자 규격의 통일화보다는 수산물의 크기 또는 중량에 대한 규격화에 치중하였으며, 수도권 도매시장내에서는 하역작업이 항운노조원의 인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력에 의한 하역체계 개선은 국내 항만에서의 항운노조원 상용화 문제와 맞물려 있어 기계화로의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부류별 수산물에 대한 포장상자 규격을 단순화·통일화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다.

수도권 3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수산물의 부류별 어상자 규격을 조사하여 생산업체의 형물 규격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함에 따라 수산물 포장상자(스티로폼)를 생산하고 있는 관련업체의 다양한 형물규격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도매시장 종사자, 중도매인 및 출하자 등과 부류별 수산물의 규격안을 마련하고 생산업체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규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류별 수산물에 대한 포장상자의 규격이 재정비되어 규격화된 어상자의 활용이 정착될 경우 다양한 포장상자의 형물규격을 간소화하고 제작에 따른 생산단가 및 출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산지 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를 앞당기는데도 일조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